

#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 진안군, 4월 17일까지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합동단속반 편성 등 총력 대응

진안군이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오는 4월 17일까지를 불법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총력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해당 기간은 매년 본격적인 영농준비 등으로 논·밭두렁 소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나들이객 등 입산자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이기에 이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게 됐다.

군은 특별기간 동안 산림과와 환경과 농촌활력과의 협력해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단속하고,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적극적인 산불 방지를 위해 나서게 된다.

읍·면 산불 이동감시원 37명 운영과 더불어 기동단속반 4명(2개조)을 가동해 산불발생에 대비한 감시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나서 철저하게 산불 방지를 위해 집중한다.

군은 합동단속을 통해 위협행위가 확인 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산불방지를 위한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 소각 금지 ▲임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않기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 휴대 금지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 버리는 행위 금지 ▲화목난방기의 타고 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산불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버리기 등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군의 소중한 산림 자원이 한순간의 방심으로 소실되지 않도록 산불 방지를 위해 노력해줄길 바란다”며 “산림 인접지 100m 이내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금지 등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조림사업으로 산림자원 확보

## 무주군, 건전한 산림 육성으로 농·산촌 소득 증대 추진

무주군은 봄철을 맞아 조림사업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와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21일 밝혔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 흡수원 확충과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 증진을 통한 청정지역 이미지 향상을 위한 취지이다.

이번 조림 사업은 ▲편백 52ha ▲백합 32ha ▲낙엽송 40ha ▲소나무 외 10종 49ha 규모로 총 173ha에 이른다. 군은 올해 조림사업을 통해 경제적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고 건전한 산림을 육성해 농·산촌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방침이다.

조림 사업은 지속 가능한 목재 자원의 공급뿐만 아니라 산림 휴양 수요증대에 따른 치유공간을 확충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산림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다.

무주군청 산림복지과 이수혁 과장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작은 실천이 미래세대에게 경제적 자원이 됨은 물론 장래의 소중한 공익적·환경적 자원이 된다”며 “지속적인 목재 공급으로 소득이 되는 경제림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이번 조림 사업과 함께 산림의 가치를 크게 저해하는 불법 산불 예방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군은 향후 환경친화적인 맞춤형 고부가가치 조림사업을 추진 지원과 기후특성 지역 특색을 고려해 조림방법을 다양화해 산림자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소식 통

#### 무주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서두르세요”

무주군은 오는 8월 4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료로 앞두고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 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이다. 단 소유권의 귀속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별법에 따라 등기하고자 하는 국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2개월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신청인은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무주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해빙기 도로정비 추진

무주군은 동절기 제설대책을 마침에 따라 해빙기 도로정비 추진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운전자들의 안전한 운행과 주민들에게 쾌적한 보행권을 주기위해서다.

동절기 한파 및 폭설 등으로 해빙기에 낙석·산사태 및 도로 시설물의 파손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총 10개 노선(국도 1, 지방도 4, 군도 5)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기로 했다.

군은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낙석, 포트홀, 구조물 파손에 대해 보수 장비·인력 투입해 신속하게 정비하여 원활하고 쾌적한 교통소통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상습결빙 구간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고 동절기 동안 도로에 쌓여있던 잔해물(염화칼슘, 모래 등)을 노면정소 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한우’ 몽골 수출길 오른다

## 한우전문 레스토랑과 협약 3년간 50톤 수출

장수군에서 생산하는 한우가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간다. 21일 장수군은 몽골현지 유통법인(Intersale LLC-ENKHBAT 대표)이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설립한 한우전문 레스토랑 ‘장수하늘소 Jangsu Korean Steakhouse’에 지난 18일부터 장수한우를 공급하기로 협약해 연간 15톤 이상, 3년간 50톤을 수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고 명품한우로 인정받고 있는 장수한우가 몽골 프리미엄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브랜드 가치 상승은 물론 안정적인 판로 확대, 유통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번 몽골 수출로 장수한우가 외국에서도 품질을 인정받게 된 만큼 추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유통통합조직화를 통한 물량확보, 수출디자인개발 및 홍보마케팅 등 한우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남북방 국가시장 개척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우를 포함한 사과, 쌀, 김치 등 다양한 가공식품도 현지 거점 레스토랑과 판매점을 통해 몽골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며, 이번 수출을 계기로 국내에서 가공한 농식품과 가공식품 수출도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과 민간이 함께 기존 유통시스템을 통합해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계획이다.

장수군 군수는 “장수한우가 국내를 넘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사)장수식품클러스터사업단(단장 서병선)을 통해 안정적인 농식품 판로 확대와 수출시장 개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에서 생산하는 한우가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간다. 21일 장수군은 몽골현지 유통법인(Intersale LLC-ENKHBAT 대표)이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설립한 한우전문 레스토랑 ‘장수하늘소 Jangsu Korean Steakhouse’에 지난 18일부터 장수한우를 공급하기로 협약해 연간 15톤 이상, 3년간 50톤을 수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고 명품한우로 인정받고 있는 장수한우가 몽골 프리미엄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브랜드 가치 상승은



장수군은 몽골현지 유통법인이 몽골수도 울란바토르에 설립한 한우전문 레스토랑 ‘장수하늘소 Jangsu Korean Steakhouse’에 장수한우를 공급하기로 협약했다.

# 장수군, 제77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장수군은 21일 제77회 식목일을 기념하고 장수군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나무심기 행사 및 산불 예방 홍보활동을 개최했다.

이번 식목일 행사는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으로 인한 빈번한 산불 발생 등으로 인해 장수군의 산림을 보호하고자 식목일보다 앞당겨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영수 장수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서면 건지리 일대에 편백나무 3,000본을 식재했으며, 묘목식재 700본을 군민들에게 무료로 분양하며 내 나무 갖기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또한 나무심기 행사 이후에는 장수군

7개 읍·면에서 산불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며 장수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군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기후변화에 대비한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 위해 올해 361ha의 면적에 경제수 및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전국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불 예방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 일자리센터 협약

진안군(군수 전춘성)은 21일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단장 조덕현)과 일자리센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에 따르면 진안군이 2022년 전라북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관내 일자리센터(로컬잡센터) 운영을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진안군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 및 일자리 정보제공,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을 위한 진안군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하여 마련됐다.

협약은 ▲진안군 일자리센터 운영 및 관리로 일자리협력망 구축 ▲컨설팅을 활용한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자 발굴 ▲구직활동 컨설팅 ▲이동상담소 운영 등으로 진안군 취업률 상승을 위한 협력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진안군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올 4월에 개소하는 진안군 일자리센터의 목

표를 ▲일자리 알선 및 채용 300명, ▲동행면접 25명 ▲채용행사 1회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2회, ▲일자리 협약체결 10개소 등으로 세우고, 양질의 일자리 사업모델 개발은 물론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앞장서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일자리센터, 어르신일자리센터, 농업인력센터와 일자리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11개 읍·면 이장협의회, 진안군 농공단지협의회, 청년협의회 등과 소통하며 진안군 일자리DB를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일자리센터를 사업체와 구직자간 쌍방향 취업의 통로로 활용하며 일자리 거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인 기전대와 상호 협력한다는 것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의회, 제275회 임시회 개최

진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75회 임시회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회의 의안 상정에 앞서 조준열 의원과 박관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과 “개발행위에 관한 합리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으며, 쌀값 안정과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양곡시장 자동거래’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2021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진안군 군수직 인

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을 각각 심의했다.

김광수 진안군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정부에서는 2021년에 초과생산된 쌀을 매입하고 격리하는 과정에서 기준가격 없이 ‘역공매 최저가 입찰’이라는 방식을 결정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을 분노케 했다”며 “시장거래가 아닌 쌀값 폭락이라는 결과만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감공이 입찰 공매가 아닌 정상 수매가 매입과 같은 적극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